

번역서 표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및 평가 - 『82년생 김지영』 번역서의 앞표지와 주제 간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마 승 혜 · 김 순 영
(동국대, 서울)

1. 서론

한국문학번역원이 2016~2020년 동안 해외에 출간된 한국문학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된 『82년생 김지영』이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이설희 2022). 국내에서 시작된 ‘김지영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일조한 『82년생 김지영』은 다양한 앞표지 디자인을 제시하며 타 언어로 번역·전달되었다.

책 표지는 독자가 책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고, 잠재 독자가 그 책을 읽을지 말지,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므로 표지를 비롯한 겉텍스트를 ‘문턱(thresholds)’이라고도 한다(Genette 1997: 2). 표지 디자인은 책 내용 및 주제를 보여주는데 내용 및 주제의 특정 요소를 ‘선택’해서 시각적 이미지 및 짧은 문구로 번역하여 전달하는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Sonzogni 2011)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듯 책 내용과 정교한 대화(또는 상호작용)를 통해 앞표지가 구성된다(Drew and Sternberger 2005: 146).

책 내용 및 주제 외에도 출판사 스타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책의 앞표지 디자인, 제목 및 작가명 타이포그래피 등 다른 요소들도 표지 디자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지가 내용 및 주제와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표지의 디자인을 보고 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Sonzogni 2011: 22-2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성차별, 갈등, 혼란이라는 굵직한 사회적 이슈를 던진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20개국 번역서 앞표지를 사회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기호를 분석하는 사회기호학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 표지와 주제 일관성을 기준으로 앞표지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표지 분류 및 기능

표지 디자인은 원천 텍스트의 내용을 기호로 재현하는 일종의 번역으로, 원천 텍스트의 어떤 요소를 시각적으로 구성할지 선별하고, 텍스트와 표지 시각적 기호를 매개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독자가 책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책의 표지이고, 표지를 통해 책 내용에 대해 예측하는데, 만약 표지가 원천 텍스트 내용과 연관성이 적으면 본문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Sonzogni 2011: 22).

표지의 기능(ibid.: 15-16)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표지는 책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 독자가 그 책을 읽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제목과 저자명을 보여주고, 책 내용을 이미지나 글로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그 책에 대해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먼저 본문 내용과 표지 이미지 간 상호작용이다. 표지 이미지가 본문 내용을 반영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책과 독자 간 상호작용이다. 표지는 저자와 독자, 책의 주제와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표지를 헨슨(Hansen 2005: 11-12)은 좀 더 세분화하여 <표 1>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한다.

<표 1> 헨슨(2005: 11-12)의 7가지 표지 분류

1.	글자 도안(lettering) 외에는 어떤 디자인 요소도 없는 딱딱한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표지.
2.	표지를 장식하는 디자인 요소는 있지만 그림으로 책 내용을 재현하지는 않는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표지.
3.	심리적 상태나 감정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림 글자체를 통해 책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는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표지.
4.	위 3가지 타입을 혼합한 것으로 주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장식 요소 또는 상세 그림을 통해 강화된 표지.
5.	책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묘사하여 책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림 중심의 표지. 이 경우 글자체는 그림을 설명하는 보충 요소로 사용됨.
6.	세부적인 환경 또는 자연환경을 묘사하지는 않으면서 책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림 중심의 표지. 주로 상징적이거나 심리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암시적이고 추상적인 경우임.
7.	구체적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터 스타일 표지. 상업적 광고와 유사함.

<표 1>을 바탕으로 『82년생 김지영』 번역서의 경우 어떠한 타입의 표지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문과의 상호작용 및 독자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 및 평가해보고자 한다.

2.2 표지 평가 기준

표지를 디자인하는 과정은 책 내용을 이미지와 짧은 문구로 전달하는 기호 간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 경우 책의 본문이 원본이고, 앞표지는 번역본이

1) 모삽(Mossop 2018)이 표지 번역은 기호 간 번역이라기보다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트랜스뮤테이션(transmutation)’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상빈(2021)은 모삽(2018)의 연구가 단지 책 두 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연구 결론이 제한적일 수 있

된다. 번역을 평가할 때는 원본과 번역본 간의 등가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표지를 평가할 때도 본문과 앞표지가 등가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Sonzogni 2011: 26). 그리고 앞표지 디자인은 선택적 번역 과정이므로 등가 및 평가 기준은 시각적 요소로 번역되는 텍스트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이 연관성은 본문 내러티브와 앞표지 시각적 내러티브 간의 ‘합치성(integrity)’ 여부로 설명할 수 있다(ibid.: 27)

본문과 앞표지 시각적 내러티브 간의 합치성 및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로 나보코프(Nabokov)의 『롤리타』(*Lolita*) 터키 번역본 앞표지를 볼 수 있다. 『롤리타』의 첫 번째 터키 번역본에서는 성인 여성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중년 남성의 12세 소녀에 대한 일그러진 집착이 주요 내용인 이 책의 앞표지에 성인 여성 이미지를 사용하자 원작자인 나보코프도 본문과 앞표지의 일관성에 대해 비난은 아니지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ibid.: 29).

이처럼 본문과 앞표지 간의 일관성은 성공적인 앞표지 요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고, 마이너(Minor)는 성공적인 표지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여 <표 2>와 같이 성공적인 표지 필수 요건을 제안한다(Minor 1995: I).

<표 2> 마이너(Minor 1995: I)의 성공적인 표지 필수 요건

1.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넘어서는(또는 내용과 어긋나는) 스타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style should not exceed content for the sake of trends)
2.	구성 요소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elements in the composition should be kept to a minimum)
3.	시각적 메시지는 어느 정도 애매하게 구성하여 독자가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visual message should be ambiguous enough to allow the reader to participate with his or her own imagination)
4.	이미지는 스토리와 작가를 존중해야 한다. (the image should honour the story, honour the writer)

<표 2>의 성공적인 표지 필수 요건에는 ‘내용을 넘어서지 않는 스타일’을

다고 지적하며 번역서 표지 이미지에서도 번역의 일반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추구하는 것과 ‘스토리를 존중’하는 것이 주요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마이너가 제시한 요건을 봐도 표지 디자인과 책의 주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3 표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방식 및 선행연구

표지 디자인은 내용과 주제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기호 간 번역이므로 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지에 재현된 이미지가 어떠한 사회적·배경적 맥락을 전달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즉, 표지 이미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맥락 층위 안에서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맥락과 기호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 맥락과 기호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이론적 기반으로 사회기호학을 적용할 수 있다. 사회기호학은 사회의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와 같은 관점에서 기호를 살펴보고, 시각 기호가 특정 집단, 문화 및 상황에서 수용자의 맥락과 동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최희경 2011: 445). 『82년생 김지영』의 경우 성차별, 여성이 겪는 부당한 대우 등 특정 집단이 처한 사회적 상황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므로 표지 이미지와 사회적 현상을 연계하여 사회기호학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미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을 위해 주로 적용하는 것은 ‘시각 디자인 문법(grammar of visual design)’(Kress and van Leeuwen 2006)이다. 이 시각 디자인 문법은 할리데이(Halliday and Matthiessen 1994)의 기능 문법(Functional Grammar)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가 수행하는 관념적(ideational), 상호관계적(interpersonal), 구성적(textual) 기능을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수행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시각 디자인 문법의 어떤 요소를 통해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메타기능 수행을 위한 시각 디자인 문법 요소²⁾

메타기능(Metafunctions)	시각 디자인 문법(Grammar of visual design) 요소
관념적 기능	· 서사 구조(narrative structure) · 개념 구조(conceptual structure)
상호관계적 기능	· 시선(gaze) ·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 각도(angle) · 양태(modality)
구성적 기능	· 정보가치(information value) · 부각(salience) · 틀(frame)

시각 디자인 문법 요소를 분석하여 표지 이미지가 어떻게 메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선영화 2017; 이상빈 2021; 최희경 2011; Li, Li and Miao 2019; Yu and Song 2017). 우선, 유와 송(Yu and Song 2017)은 <표 3>에서 제시한 시각 디자인 문법 요소 중 상호관계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인 ‘사회적 거리’와 ‘각도’를 중심으로 『육조단경』(六祖壇經, *Platform Sutra*)의 두 가지 영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나는 혜능(慧能, Huineng) 대사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작 중 인물의 이미지를 가까이서 보여주는 클로즈 샷(close shot)을 사용하여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면 독자는 그 인물에 대해 좀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고, 롱 샷(long shot)을 사용하여 인물 이미지를 멀리서 보여주면 독자와의 거리가 멀어져 독자가 인물에 대해 느끼는 친숙함이 줄어들 수 있다. 두 영어 번역본 중 하나에서는 클로즈 샷을 적용하여 혜능 대사의 이미지를 가까이서 보여주고, 독자의 눈높이 각도(eye-level angle)를 이용하여 독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혜능 대사를 친숙한 인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본문 번역에서 ‘우리(we)’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좁힌 것과 일관성을 이룬다.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롱 샷을 적용하여 혜능 대사의 이미지를 멀리서 보여주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본문 번역에서도 화자는 ‘나(I)’로 제시되고 ‘나’의 설교를 듣는 ‘그대들(you)’이 등장하여 화자의 권위를 세우고 독자과 거리를 유지한다. 두 영어 번역본에서 혜능 대사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두 번역본 모두 표지 이미지와 본문 내용

2) 최희경(2011: 447)의 연구에서 제시한 <표 1>을 발췌·수정한 것임.

간 일관성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리, 리와 미아오(Li, Li and Miao 2019)는 장웅(Jung Chang)의 *Wild Swans* 프랑스 번역본과 대만 번역본의 표지 이미지를 시각 디자인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데올로기에 따라 표지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Wild Swans*는 1991년 영국에서 출간된 작품으로 반마오(anti-Mao), 반공(anti-communism) 사상을 모티프로 하는 소설이다. 이 책의 프랑스 번역본 표지는 동양의 오리엔탈리즘 요소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원작 표지에는 없는 ‘Révolution culturelle(문화 대혁명)’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반마오 모티프를 드러내고 있지만, 대만 번역본 표지에서는 이러한 반마오 모티프가 비가시적으로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다.

선영화(2017)는 텍스트 유형(소설과 경영·경제서)에 따라 번역서 표지의 번역 변이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광고기능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언어 기호와 시각 기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소설의 경우 번역서 표지에서 내용은 최소 단서만 제공하고 시각 기호의 주목도를 높여 독자의 정서적·감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경영·경제서의 경우 번역서 표지에서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정보의 설득력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독자의 인지적 측면을 자극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빈(2021)은 젠더/여성/페미니즘 번역서 표지에서 전략적·조직적으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번역서 표지에서 여성을 ‘행동하는 인물’ 또는 ‘남성에게 저항하는 인물’로 묘사한다든지 책 제목에 ‘여자’, ‘페미니즘’과 관련된 어휘를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등 독자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거나 독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번역서 표지 번역이 수행된 것을 보여주었다.

최희경(2011)은 아동서와 인문사회 분야 번역서 각 20권씩을 선정하여 사회기호학과 이미지 문법을 바탕으로 원서와 번역서 간 표지 시각 기호 변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서는 원서의 시각적 요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문사회 분야 도서는 원서 표지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언어 텍스트가 전면부에 부각된 경우가 많아서 번역서에서 큰 폭의 변이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원서에서는 언어 텍스트 위주였던 표지가 번역서에서는 언어 텍스트를 축소하고 원서에 없는 이미지를 추가한 것이다(최희경 2011: 453-454).

최희경(2011)의 연구에서 한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표지 분석에서 책의 내용을 논의로 하고 표면적 기호만 분석했다는 점이다. 표지는 책의 성격이나 내용을 알리는 기능도 있으므로 내용과 연계된 시각 기호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한다(ibid.: 458).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시각 기호와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 ‘표지와 주제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하여 『82년생 김지영』 번역본 앞표지를 사회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해보겠다.

3. 분석 대상

3.1 『82년생 김지영』 소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 출간된 이래 국내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이고, 2020년까지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일본 아마존에서 판매된 지 5일도 지나지 않아 아시아 문학 부문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에서만 20만 부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TIME*은 2020년 꼭 읽어야 할 책 100선 중 하나로 이 책을 선정했고, 미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전미도서상 후보에도 올랐다. 대만에서는 전자책 사이트 리무 오드에서 집계하는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류호 2020).

이처럼 국내외에서 ‘김지영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30대 여성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가정, 학교, 회사에서의 성차별과 임신과 육아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김지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고발한다. 김지영은 결혼 후 아이를 위해 자신의 꿈과 직장, 심지어 친구까지 포기하고 가정과 육아에 헌신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보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소비만 하는 ‘맘충’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된다. 표지 디자인은 이러한 책 내용 중 특정 요소를 선택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는 기호 간 번역이므로 표지에 구현될 수 있는 이 책의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2 『82년생 김지영』 주제

『82년생 김지영』의 핵심 주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부당한 삶의 조건과 이로 인한 여성의 정체성 상실을 고발한다(엄혜진 2021: 123). 특히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30대 여성들은 온전한 개인, 자립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고(김미정 2020: 309), 이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30대 한국 여성의 모습이 김지영에게 투영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여성을 한 명의 독립적 인간이 아닌 부속물로 바라보며 성차별적인 언술을 자행하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김지영은 맞서 싸우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며 목소리를 잃어버린 서벌턴(Subaltern)³⁾이 된다(강진옥 2019: 197).

둘째, 작품 속 여성 인물의 연대 및 인물과 독자와의 연대 형성이 또 하나의 핵심 주제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김지영은 타인의 목소리를 빌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이렇듯 김지영이 ‘빙의’하는 대상은 외할머니, 친정엄마, 동아리 선배 등 김지영 주변의 여성들이다. 성차별과 억압이 할머니부터 어머니, 딸에게까지 축적되어 이어지며 이를 단지 김지영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여성의 이야기로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엄혜진 2021: 146). 이러한 연대는 작품 밖으로 확대되어 인물과 독자 간의 연대를 형성한다. 김지영에게 자기 모습을 투영한 여성 독자들이 김지영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구성한다. 이 소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도 ‘연대하는 독자’(허운 2018)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작품은 가부장적 질서와 성차별로 인해 김지영이 느끼는 불안, 슬픔, 두려움을 공유한다(정연옥 2022). 김지영은 직장생활을 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성실하게 일했고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남편의 직장이 더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살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조남주 2016: 143). 그래서 김지영은 우울해졌고, 길을 가다가 왈각 눈물을 쏟기도 했으며, 승강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기도 했다. 그리고 출산 후 직장

3) 스피박(Spivak 1998)은 억압당하는 주변부, 즉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된 노동자, 농민, 여성, 피식민지인 등을 서벌턴으로 규정한다.

을 그만두며 직장, 동료, 친구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

원작 앞표지에서는 여성의 뒷모습과 쓸쓸한 그림자를 보여주며 김지영이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82년생 김지영』 원작 표지



다음 장에서는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앞표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표지와 주제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각 언어권에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를 분석해보겠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데이터는 총 20개 언어권에서 출간된 『82년생 김지영』 번역서 앞표지이다. 이들 중 핵심 주제와 일관성이 높은 앞표지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앞표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자.

4. 분석 결과

4.1 표지와 주제 간 일관성이 높은 사례

4.1.1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정체성 상실한 여성

먼저, 이 책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부당한 삶의 조건과 그로 인한 여성의 정체성 상실을 고발하는 것이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갔다가 아이가 잠들어서 김지영은 커피 한 잔을 사 들고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다. 옆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직장인들이 자신을 ‘맘충’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당황한 김지영은 뜨거운 커피를 손등에 왈각왈각

쏟으며 황급히 공원을 빠져나왔고, 남편이 퇴근하자 수치심과 절망감에 김지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조남주 2016: 165)

이렇듯 여성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주제를 번역서 앞표지에 드러낸 사례는 <그림 2>와 같다. 왼쪽부터 미국·일본·이집트·태국에서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이다.

<그림 2> 정체성 상실한 여성 이미지 1



<그림 2> 사례에서는 얼굴의 눈, 코, 입이 모두 지워져 있다. 미국, 일본, 이집트 번역서에는 지워진 얼굴에 황량한 풍경이 채워져 있고, 태국 번역서의 경우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얼굴은 통상적으로 ‘주체’ 또는 ‘주체성’의 징표이고, 얼굴의 윤곽과 고체성을 일그러뜨리는 것에서 ‘주체의 해체’를 떠올릴 수 있다(김미정 2020: 309). 이 얼굴 없는 두상 이미지는 자립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는 얼굴 없는 사람이 정면으로 부각되고 클로즈 샷을 사용하여 독자와 이미지 간 거리가 매우 가깝다 보니 독자가 앞표지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쉽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138). 이

집트 번역서 앞표지는 얼굴 없는 여성이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는 경우보다 다소 거리가 느껴지고, 태국 번역서 앞표지에서는 얼굴이 지워진 여성이 별개의 틀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독자와 거리감이 좀 더 느껴진다.

색깔을 통해 수행하는 상호관계적 기능을 살펴보면, <그림 2>의 경우 배경색이 탁한 하늘색, 어두운 녹색이다. 어두운 녹색을 비롯하여 채도가 낮은 탁한 색은 주로 차분함, 가라앉음 등의 감정과 연관성이 있고(Mossop 2018: 7), 채도가 낮은 색은 억압되고, 음울하며, 침울한 감정을 보여주기도 한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233).

<그림 2> 사례들은 표지 분류 <표 1> 중 6번째인 ‘상징적이거나 심리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암시적이고 추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표지이다. 표지 이미지는 정체성을 상실한 여성과 정체성 상실로 인한 여성의 침울한 감정이라는 본문 내용과 일관성을 지니므로 시각적 메시지는 스토리를 반영하면서도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독자가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유추할 수 있게 구성한다는 성공적인 표지 필수 요건인 <표 2>를 대부분 충족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왼쪽부터 영국-네덜란드-독일-그리스에서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이다.

<그림 3> 정체성 상실한 여성 이미지 2



<그림 2>의 미국과 일본 번역서 앞표지처럼 앞표지 여성의 얼굴이 지워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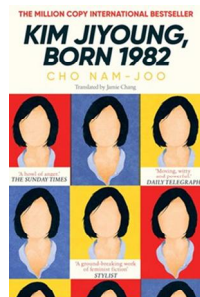
있고, 클로즈 샷을 사용하여 독자와 이미지 간 거리를 가깝게 좁혀서 독자가 앞 표지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지만, <그림 3>의 경우에는 얼굴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제목을 적어놓아서 이 얼굴 없는 여성이 책을 읽는 모든 여성일 수 있다는 공감 유도보다는 정체성을 상실한 책 속 주인공 김지영이라는 내용 전달에 좀 더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색깔을 통해 전달하는 상호관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밝은 빨간색은 에너지를 북돋아 주고(Kress and van Leeuwen 2006: 229), 오렌지와 빨간색은 차분함보다는 활기 또는 흥분 감정을 전달한다(Mossop 2018: 8). 이러한 색깔이 전달하는 활기찬 감정은 본문 내용과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처럼 <그림 3> 사례들은 정체성 상실로 인해 김지영이 겪고 있는 감정 및 분위기는 전달하지 못하지만, 정체성을 상실한 인물이라는 핵심 내용은 전달하고 있으므로 표지와 주제 간 일관성이 높은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4.1.2 정체성 상실한 여성들의 연대

이 책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정체성을 상실한 여성들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그림 4>는 이 주제를 강조한 표지 디자인을 보여준다. <그림 4>는 영국에서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인데 영국에서 출간된 2종의 번역서 중 하나이다. 첫 번째는 <그림 3>의 얼굴 없는 두상 이미지이고, 두 번째는 <그림 4>의 얼굴 없는 두상 이미지를 여럿 모아놓은 디자인이다.

<그림 4> 정체성 상실한 여성의 연대 이미지



<영국>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눈, 코, 입 대신 황량한 풍경이 채워지거나 책 제목인 ‘82년생 김지영’이 적혀 있다. 그런데 <그림 4>에서는 단지 눈, 코, 입을 지우기만 하였을 뿐 다른 이미지나 글자로 채워 넣지 않았다. 이는 누구든 빈 얼굴에 자기를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미정 2020: 309). 클로즈 샷을 통해 보여주는 표지 인물이 정면을 바라볼 경우 독자는 그 인물과 동일시하여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므로(Kress and van Leeuwen 2006: 138) <그림 4>는 정체성을 상실한 여성이 김지영뿐만 아니라 여성 독자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작품 속 김지영과 친정엄마, 외할머니라는 여성 인물 간 연대에서 더 나아가 작중 인물과 독자와의 연대라는 주제를 강조한 앞표지이다.

<그림 4>의 경우도 <표 1> 표지 분류 중 6번째인 ‘상징적이거나 심리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암시적이고 추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표지 이미지는 핵심 주제와 일관성을 지니고, 시각적 메시지는 스토리를 반영하면서도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독자가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유추할 수 있게 구성하므로 성공적인 표지 요건 <표 2>를 대부분 충족하는 성공적인 표지로 평가할 수 있다.

4.1.3 가부장적 질서와 성차별로 불안, 슬픔,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

이 책의 세 번째 핵심 주제는 가부장적 질서와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느끼는 불안, 슬픔, 두려움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이다. <그림 5> 사례들은 이러한 불안, 슬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대만-베트남-태국-터키-우크라이나-체코에서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이다. 여성 인물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대만 번역서), 여성이 고개 숙인 뒷모습을 제시하거나(베트남,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번역서), 건물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물의 손과 발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체코 번역서) 앞표지이다.

<그림 5>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 이미지



<대만>

<베트남>

<태국>

<체코>

<우크라이나>

<터키>

대만 번역서의 경우 책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 즉 성차별 및 여성 억압으로 인해 여성이 불안과 슬픔을 느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책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림 중심의 앞표지이다. <표 1>의 표지 분류에서 5번째 분류에 해당한다. 그 외 사례들은 6번째 분류인 책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림 중심의 표지로, 주로 상징적이거나 심리적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암시적이고 추상적인 앞표지이다.

여성의 뒷모습을 제시한 이미지는 한국어 원작의 표지(그림 1)와 유사한 디자인이다. 뒷모습은 눈도 입도 없으니 말도 없다. 즉, 할 말을 잃고 침묵하게 된 인물을 보여준다(이연식 2018).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다른 여성 인물로 빙의하여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이처럼 뒷모습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출판계에서는 유행인데, 뒷모습은 스스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든 의미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슬기 2018). 그리고 등을 돌린 사람의 모습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은유로 작용하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힘없이 등을 돌린 모습만으로도 가능하다(심은진 2016: 150). 이처럼 <그림 5>의 여러 앞표지 사례에서 뒷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슬픔, 불안 등의 감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앞모습에 독자가 자신의 얼굴을 투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은 앞서 얼굴이 지워진 표지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동남아에서 이 책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성차별과 여성 억압 상황 관련하여 동남아 여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김지영에 투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김성신 2019). 그러므로 <그림 5>의 사례들은 억압 가운데 침묵하게 된 김지영의 슬픔, 불안 등 책의 주요 내용 및 주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표지와 주제 간 일관성이 높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2 표지와 주제 간 일관성이 낮은 사례

4.2.1 작중 인물에 부합하지 않는 젊은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

앞표지에서 책의 주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번역본도 있다. <그림 6>은 왼쪽부터 스페인-프랑스-루마니아에서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이다. <그림 6> 번역서 앞표지에는 젊은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는 여성의 정체성 상실이라든지 성차별 및 여성 억압으로 인한 불안,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 또는 여성의 연대와 같은 책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가 아니다.

<그림 6> 젊은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



먼저, 스페인 번역서 앞표지에는 젊은 아시아 여성이 고개를 가우뚱하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불안, 허무함, 슬픔과 같은 감정보다는 무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또는 어리둥절해하는 감정을 전달한다. 이는 책의 구체적인 주제보다는 아시아 여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배경만 보여줄 뿐이다. 후루카와(Furukawa 2012)는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Yoshimoto Banana)가 집필한 『키친』(*Kitchen*)의 미국과 영국 번역서 앞표지를 분석하였는데, 영국에서 출간된 번역서의 경우 앞표지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게이샤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⁴⁾ 책 내용은 게이샤와 무관한데도 서구에서 일본 여성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반영한 이미지로 앞표지를 디자인한 것이다(221-222). 서구에서는 아시아 여성에 대해 작고, 귀엽고,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비위협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Li, Li and Miao 2019: 272),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82년생 김지영』의 스페인 번역서 앞표지도 책 내용 및 주제와 무관하게 서구에서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시아 여성 이미지를 보여준다.

프랑스 번역서 앞표지에는 위를 올려다보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배경과 머리카락에 사용된 붉은색과 더불어 저항의 이미지를 보여준다.⁵⁾ 이는 여성의 정체성 상실이라든지 성차별로 인한 상실감, 불안감 같은 책 내용 및 주제를 드러내다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저항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앞표지라고 할 수 있다. 앞표지에 ‘PHÉNOMÈNE(현상)’이라는 단어를 제목만큼 큰 글씨로 적은 것만 보아도 이 책이 한국의 사회적 현상 및 상황을 드러내는 소설이라는 것을 앞표지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4) 『키친』은 가족을 모두 잃은 주인공이 요리를 통해서 홀로서기를 해나감과 동시에 자신이 만든 음식을 통해 가족을 잃은 다른 사람과 가족 같은 친밀감을 갖게 되고 상실감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 5) 문화별로 색깔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복(福)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열과 강함을 상징하기도 한다(김길수 2017). 프랑스의 경우 공포정치 시기에 단두대 처형 시 붉은색이 사용되기도 했고, 붉은색은 공산주의 혁명을 상징하기도 하며, 마가렛 앳우드(Margaret Atwood)의 소설 『시녀이야기』(*The Handmaid's Tale*)에서는 붉은색이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Rhys 2022).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붉은색은 나약함보다는 강함과 저항을 상징하는 경향이 있다.

루마니아 번역서 앞표지에는 격식을 차린 듯한 옷을 입은 아시아 여성 얼굴이 반만 보이는데, 배경에는 네온 불빛이 번쩍이며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KIM JIYEONG, NĂSCUTĂ ÎN 1982*(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제목 아래에는 ‘Emoționant, inteligent și puternic(흥미진진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강력함)’이라는 *Daily Telegraph*의 책 소개말을 인용하고 있다. 네온 불빛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감정을 전달하는데(Mossop 2018: 8), 이러한 그림 이미지와 짧은 소개글이 전달하는 흥분 또는 화려함과 같은 감정은 이 책의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서유럽 국가들의 번역본 앞표지에 책 내용 및 주제와 무관한 젊은 여성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강선(2019)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설명한다. 앞서 일본 소설 『키친』의 영어 번역본 사례처럼 서양인이 동양인에 대해 지닌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표지에 드러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앞표지의 경우 독자가 앞표지만 보고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메시지를 파악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책 내용 및 주제와 일관성을 기준으로 볼 때 <그림 6> 사례는 성공적인 표지라 평가하기 어렵다.

4.2.2 주제 및 핵심 인물의 감정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이미지

<그림 7>은 왼쪽부터 중국-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에서 출간된 번역서 앞표지이다.

<그림 7> 주제와 인물의 감정이 불명확한 이미지



<중국>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중국 번역서 앞표지는 긴 생머리의 젊은 여성 얼굴을 부분적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 이미지만으로는 30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 성차별로 겪게 되는 좌절, 상실감, 두려움 등을 짐작하기 어렵다. 책 분위기를 암시적,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앞표지이지만, 분위기와 감정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번역서 앞표지도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지만, <그림 5>의 대만 번역서처럼 직접적으로 눈물방울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눈 아래 타원은 불이 밧그레 상기된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마지막 아제르바이잔 번역서의 경우 여성 인물의 뒷모습을 제시한다는 점은 <그림 5>의 뒷모습 표지 사례와 유사하고 거울에 비친 여성의 모습이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황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사진으로 기울어진 제목과 작가명 뒤에 배치되었고, 전면에 부각된 제목 *1982 tavallüdlü Kim Ci Yon*(82년생 김지영)과 작가명 *Ço Nam Ju*(조남주)는 사진으로 제시되어 역동감과 활기찬 감정을 전달한다. 도형의 기울어짐이나 사진은 역동감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57). 게다가 밝은 노란색이 지배적인 색깔로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감정을 더하고 있다. 이는 주인공 김지영이 느끼는 좌절, 슬픔, 불안 등의 감정과는 상반되는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책 내용 및 주제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그림 7>의 사례는 성공적인 표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출간된 이래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82년생 김지영』의 20개국 번역서 앞표지를 사회기호학적 측면에서 시각 디자인 문법을 적용하여 분석해보고, 이미지와 주제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해보았다. 이 연구가 지닌 한계점 및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분석 및 평가 시 최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시각 이미지 문법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해석 및 평가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있고, 이는 향후 보완해야 할 연구 한

계이다. 그러나 본문 내용 중 어떤 요소를 선택하여 앞표지에 담을지 결정하는 데에는 주관적 선택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앞표지 디자인에 있어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이다(Sonzogni 2011: 26). 그리고 주관적 선택으로 구성된 앞표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도 텍스트 수용자가 느끼는 감정과 해석을 바탕으로 이미지 요소를 분석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이상빈 2021: 135). 그런데 특정 책을 마케팅하는 홍보 담당자나 표지 디자이너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 수용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과 해석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Mossop 2018: 2). 이러한 표지 디자인 분석 및 해석에 관한 데이터가 누적되면 향후 분석의 객관성이 좀 더 제고될 것이다.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중 또 다른 하나는 표지와 독자 수용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이미지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앞표지를 평가해보았지만, 표지 평가 기준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자 수용이고, 표지 디자인과 독자 수용도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 파악할 경우, 표지 분석 및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지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성공적인 표지로 분류된 번역서와 독자 수용도를 연계한 연구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성차별, 여성혐오, 여성의 경력 단절, 정체성 상실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도 공론화할 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⁶⁾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달되었다. 타 문화로 전달될 때 잠재 독자의 책 선택 및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표지이기 때문에 주제와 연관성 있는 표지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문학 작품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는 가운데 표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한다면 한국 문학 작품의 해외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 책을 번역한 제이미 창(Jamie Chang)은 인터뷰에서 “여성혐오가 한국, 혹은 동양 문화권에서만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자상속제, 남성선호 등은 서양 문화권과 유대교와 기독교 사회에도 만연”(김형은, 윤인경 2019)한 문제라고 언급한다.

참고문헌

- 강진욱 (2019)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와 그 한계」, 『정치사상연구』 25(1): 180-204.
- 김미정 (2020)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1: 284-313.
- 엄혜진 (2021)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0(1): 121-162.
- 이강선 (2019)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20(2): 57-79.
- 이상빈 (2021)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젠더/여성/페미니즘 관련 번역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변화: 표지 이미지와 책제목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3(1): 125-160.
- 이연식 (2018) 『뒷모습』, 파주: 이봄.
- 조남주 (2016)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 선영화 (2017) 「광고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본 번역서 표지 변이 양상 연구 — 표현적 텍스트와 정보적 텍스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3): 119-148.
- 심은진 (2016) 「두 개의 시선 — 카메라 정면 보기와 인물의 뒷모습」, 『씨네포럼』 23: 139-164.
- 최희경 (2011)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441-464.
- 허윤 (2018) 「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 — ‘김지영 현상’과 ‘읽는 여성’의 욕망」, 『문학과 사회』 31(2): 38-55.
- Drew, Ned and Paul Sternberger (2005) *By Its Cover: Modern American Book Cover Design*,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Furukawa, Hiroko (2012) ‘Representations are Misrepresentations: The Case of Cover Designs of Banana Yoshimoto’s *Kitchen*’, *TTR* 25(2): 215-233.
- Genette, Gé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Lewin, J. E.), Cambridge: Cambridge UP.

- Halliday, Michael and Christian Matthies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third edition, New York: Hodder Arnold.
- Kress, Gunther and Theo van Leeuwen (200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Li, Long, Xi Li and Jun Miao (2019) 'A Translated Volume and Its Many Covers – A Multimod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deology', *Social Semiotics* 29(2): 261-278.
- Minor, Wendell (1995) *Wendell Minor: Art for the Written Word: Twenty-Five Years of Book Cover Art*,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 Mossop, Brian (2018) 'Judging a Translation by Its Cover', *The Translator* 24(1): 1-16.
- Sonzogni, Marco (2011) *Re-Covered Rose: A Case Study in Book Cover Design as Intersemiotic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98) 'Can the Subaltern Speak?', in Car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66-111.
- Yu, Hailing and Zhongwei Song (2017) 'Picture-text Congruence in Translation: Images of the Zen Master on Book Covers and in Verbal Texts', *Social Semiotics* 27(5): 604-623.



<인터넷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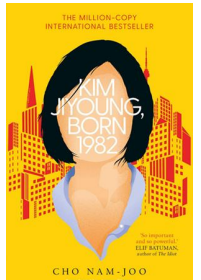


- 김길수 (2017) 「중국인은 왜 빨간색을 좋아할까?」, 『글로벌 이코노믹』, 2022년 8월 28일 검색. Available at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706281644539244d6eb469fd3_1/article.html?md=20170628170944_U
- 김성신 (2019) 「동남아 여성차별 보편적 삶이 소설 '82년생 김지영' 일본, 중국 인기 불러와」, 『YTN』, 2022년 7월 1일 검색. Available at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181006272017
- 김슬기 (2018) 요즘 책표지에 '인물 뒷모습'이... 매일경제, 2022년 7월 10일 검색

- 색.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8/09/605502/>
- 김형은, 윤인경 (2019) 「82년생 김지영: ‘나는 한 번도 소수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번역가 제이미 쉐 인터뷰」, 『BBC NEWS』, 2022년 7월 1일 검색. Available at <https://www.bbc.com/korean/news-50230561?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 류호 (2020) 「美 타임 “82년생 김지영, 꼭 읽어야 할 책”... 계속되는 김지영 열풍」, 『한국일보』, 2022년 7월 1일 검색. Available at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615370005452?did=NA>
- 이설희 (2022)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 1위... ‘82년생 김지영’」, 『위키트리』, 2022년 7월 1일 검색. Available at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25247>
- 정연욱 (2022) 「그녀들이 던진 물음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KBS NEWS』, 2022년 7월 1일 검색. Available at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9497&ref=A>
- Rhys, Dani (2022) ‘Symbolic Meaning of the Color Red’, *Symbolsage*, Available at <https://symbolsage.com/color-red-meaning/>

[첨부]

『82년생 김지영』 원작 및 번역서 앞표지

			
원작	미국 번역서	일본 번역서	이집트 번역서

			
태국 번역서	영국 번역서	네덜란드 번역서	독일 번역서

			
그리스 번역서	영국 번역서	대만 번역서	베트남 번역서

태국 번역서	체코 번역서	우크라이나 번역서	터키 번역서
스페인 번역서	프랑스 번역서	루마니아 번역서	중국 번역서
인도네시아 번역서	아제르바이잔 번역서		

[Abstract]

A Social-Semiotic Approach to Book Cover Analysis and Evaluation: Focusing on the Congruence Between Covers of *Kim Ji-young, Born 1982* Translations and the Themes

Seung-Hye Mah & Soo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Seoul)

The first encounter with a book occurs at the cover, and the book cover influences readers' decision-making about whether to buy the book or not. If the book cover has little relevance to the original content and theme, the book may be misrepresented, ultimately misleading the readers who attempt to predict the content based on the book cover.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s the book covers of *Kim Ji-young, Born 1982* translations. Contributing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this novel was delivered into other cultures with various cover illustrations at the front. The main themes of this novel are disclosing identity crisis of women in Korean society, constructing solidarity among women, and sharing anxiety and grief with other women. The congruence between the cover design and the theme of the book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for successful cover designs. Therefore, this paper takes a social-semiotic approach to analyze the book covers of *Kim Ji-young, Born 1982* translations published in 20 countries and evaluates them on the basis of congruence between the cover and the theme.

Keywords: book cover analysis, book cover evaluation, social semiotics, grammar of visual design, *Kim Ji-young, Born 1982*

주제어: 표지 분석, 표지 평가, 사회기호학, 시각 디자인 문법, 『82년생 김지영』

마승혜(1저자, <https://orcid.org/0000-0003-2098-1777>)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조교수

shm213@gmail.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멀티모달리티 번역

김순영(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교수

imksy927@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영상번역, 트랜스크리에이션

논문투고: 2022년 8월 3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8월 26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8일